
2017년 부산지역 경제동향 조사

2018. 2

〈 조 사 요약 〉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경제동향】

○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여파와 신규고용 부진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이 지속됨.

○ 산업활동

- 12월중 부산지역 산업생산지수: 99.3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 원자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예정 등의 부정적인 경영 환경 가운데 일부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생산이 다소 증가했으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업종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수출

- 12월중 부산지역 수출: 13억 3,300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 품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비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각종 기계, 철강 제품의 수요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증가

○ 소비

- 12월중 부산지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108.2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연말 행사와 기념일 등 각종 이벤트 선물 수요 증가, 한파로 인한 겨울 의류 소비 확대 등의 요인으로 백화점을 중심으로 증가

○ 고용

- 12월중 부산지역 실업률: 4.2%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여파와 제조업 신규고용 부진, 최저임금 상승 예정 등의 요인으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실업률 상승

【2017년 12월중 분야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생산지수: 99.3 (9.6% 감소)
출하지수: 106.5 (9.1% 감소)
재고지수: 170.2 (25.2% 증가)
- 수출: 13억 3,300만 달러 (2.3% 증가)
수입: 12억 9,900만 달러 (16.7% 증가)
무역수지: 3,400만 달러 흑자
- 화물처리 실적: 3,412만 6,804톤 (13.9% 증가)
컨테이너 처리 실적: 174만 3,884TEU (7.2% 증가)
- 취업자수: 164만 3천명 (0.8% 감소)
고용률: 55.8% (0.2%p 하락)
실업자수: 7만 2천명 (17.0% 증가)
실업률: 4.2% (0.6%p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103.18 (1.4% 상승)
생활물가지수: 102.99 (1.4% 상승)
신선식품지수: 105.55 (6.0% 하락)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108.2 (2.4% 증가)
백화점: 113.9 (3.2% 증가)
대형마트: 103.3 (1.6% 증가)
- 건축허가면적: 384,521㎡ (60.1% 감소)
건축착공면적: 363,079㎡ (44.2% 감소)
건설수주액: 7,643억원 (45.4% 감소)
- 어음부도율: 0.14% (0.58%p 감소)
- 신설법인: 393개체 (4.6% 감소)

【2017년 부산지역 경제동향】

○ 2017년 부산지역 경제는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산업생산과 소비가 감소했으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다만,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의 증가 수준을 하회함.

○ 산업활동

- 2017년 부산지역 산업생산지수: 98.4 (전년대비 6.1% 감소)
- 산업 생산은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로 일부 기계분야에서 전년대비 회복세를 보였으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수주부진 지속, 완성차 내수 부진 및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주력 업종의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감소

○ 수출

- 2017년 부산지역 수출: 150억 6,600만 달러 (전년대비 7.0% 증가)
- 부산지역 수출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임. 다만,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이 감소하면서 전국의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소비

- 2017년 부산지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103.5 (전년대비 0.8% 감소)
- 대형마트는 판촉활동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보합수준이 유지됐으나, 백화점에서 사드보복조치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해외직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

○ 고용

- 2017년 부산지역 실업률: 4.6% (전년대비 0.7%p 상승)
- 서부산권 개발 및 각종 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설업의 고용은 크게 늘었으나,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주력 업종 고용 위축으로 실업률 상승

【2017년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률】

- 생산지수: 98.4 (6.1% 감소)
출하지수: 101.3 (3.1% 감소)
재고지수: 170.2 (25.2% 증가)
- 수출: 150억 6,600만 달러 (7.0% 증가)
수입: 144억 6,200만 달러 (6.7% 증가)
무역수지: 6억 400만 달러 흑자
- 화물처리 실적: 4억 51만 3,072톤 (10.5% 증가)
컨테이너 처리 실적: 2,047만 2,786TEU (5.2% 증가)
- 취업자수: 165만 7천명 (0.2% 감소)
고용률: 56.0% (보합)
실업자수: 8만명 (18.4% 증가)
실업률: 4.6% (0.7%p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 102.99 (1.8% 상승)
생활물가지수: 103.04 (2.1% 상승)
신선식품지수: 110.38 (3.8%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103.5 (0.8% 감소)
백화점: 97.0 (1.8% 감소)
대형마트: 109.1 (0.1% 증가)
- 건축허가면적: 10,812,864㎡ (40.8% 증가)
건축착공면적: 6,672,734㎡ (37.9% 증가)
건설수주액: 8조 2,752억원 (1.2% 감소)
- 어음부도율: 0.12% (0.11%p 감소)
- 신설법인: 4,850개체 (0.7% 증가)

목 차

I. 산업활동

II. 무역과 물동량

III. 고용

IV. 물가와 소비

V. 건설

VI. 금융

VII. 신설법인

1. 12월중 부산지역 산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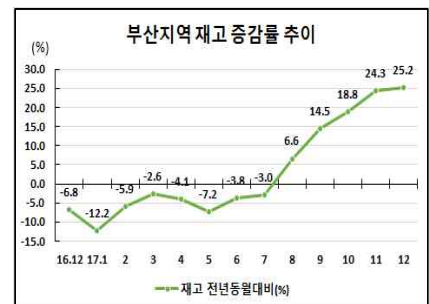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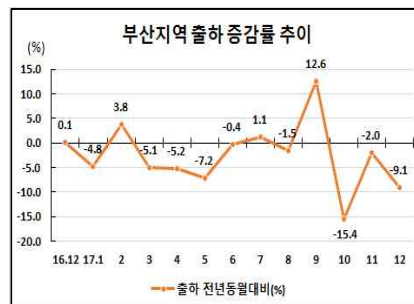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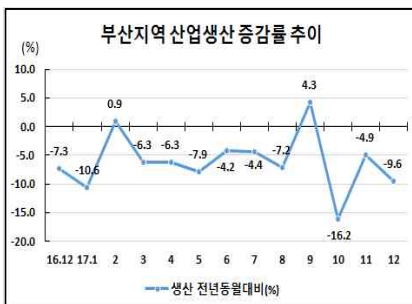
2017년 12월중 생산지수: 99.3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출하지수: 106.5 (전년동월대비 9.1% 감소)

재고지수: 170.2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

(2010 = 100)

- 12월중 부산지역 산업생산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 했으나, 주력 업종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6% 감소
- 부산지역 산업 생산과 출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납품 물량 감소로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재고비용 상승과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생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9.4%), 전기장비(4.5%)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42.9%), 완성차(△33.6%)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감소
- (출하) 가죽 및 신발(10.6%), 고무 및 플라스틱(4.7%)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34.3%), 완성차(△24.0%), 금속가공(△7.8%) 등에서 감소
- (재고) 전기장비(△37.0%), 고무 및 플라스틱(△36.7%)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42.8%), 금속가공(28.7%), 1차금속(24.7%) 등에서 증가

<산업활동 증감내역(전년동월대비)>

구 분	생 산(△9.6%)	출 하(△9.1%)	재 고(25.2%)
증 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9.4%), 전기장비(4.5%), 가죽 및 신발(2.4%)	가죽 및 신발(10.6%), 고무 및 플라스틱(4.7%), 전기장비(1.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426.0%), 기계장비(42.8%), 1차금속(24.7%)
감 소	기타운송장비(△42.9%), 완성차(△33.6%), 금속가공(△7.7%), 1차금속(△4.3%)	기타운송장비(△34.3%), 완성차(△24.0%), 금속가공(△7.8%), 1차금속(△3.7%)	전기장비(△37.0%), 고무 및 플라스틱(△36.7%), 가죽 및 신발(△5.7%)

※출처: 통계청

<2017년 12월중 산업활동 동향>

(2010=100, 전월비: 계절조정, 단위: 원지수,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생산	109.8	104.8	100.5	99.3	98.4	△0.6	△9.6	△6.1
	출하	117.1	104.5	105.2	106.5	101.3	△0.1	△9.1	△3.1
	재고	135.9	135.9	177.7	170.2	170.2	1.3	25.2	25.2
전국	생산	118.0	109.2	113.0	110.9	109.9	△0.5	△6.0	0.6
	출하	118.5	109.0	114.1	110.3	109.6	△2.0	△6.9	0.6
	재고	124.0	124.0	135.2	135.9	135.9	1.4	9.6	9.6

※출처: 통계청

2. 2017년 부산지역 산업활동

2017년 생산지수: 98.4 (전년대비 6.1% 감소)
 출하지수: 101.3 (전년대비 3.1% 감소)
 재고지수: 170.2 (전년대비 25.2% 증가)

- 2017년 부산의 산업생산은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로 일부 기계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수주부진 지속, 완성차 내수 부진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급감 등 주력 업종의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6.1% 감소
 - 2017년 기타운송장비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56.0% 감소하면서 가장 큰 감소폭 기록
-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6년 1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특히 2017년 4분기 조업일수 감소, 완성차 판매 부진 및 파업에 따른 자동차부품 납품 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 감소폭이 확대됨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4분기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준: 10월(△33.4%), 11월(△19.7%), 12월(△33.6%)
 - 조선 및 조선기자재 4분기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준: 10월(△52.5%), 11월(△47.7%), 12월(△42.9%)

<2017년 부산지역 분기별 산업활동 동향>

(2010=100, 단위: 원지수, %)

구 분	2016년					2017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생 산 (전년동기비)	107.9 (△1.2)	105.4 (△6.9)	99.8 (△8.9)	106.1 (△7.6)	104.8 (△6.2)	101.9 (△5.6)	98.9 (△6.2)	97.3 (△2.5)	95.3 (△10.2)	98.4 (△6.1)
출 하 (전년동기비)	105.9 (1.2)	105.7 (△2.6)	96.5 (△7.0)	110.0 (△1.8)	104.5 (△2.5)	103.5 (△2.3)	101.2 (△4.3)	100.3 (3.9)	100.3 (△8.8)	101.3 (△3.1)
재 고 (전년동기비)	148.0 (△8.9)	158.3 (2.2)	152.2 (△5.8)	135.9 (△6.8)	135.9 (△6.8)	144.2 (△2.6)	152.3 (△3.8)	174.3 (14.5)	170.2 (25.2)	170.2 (25.2)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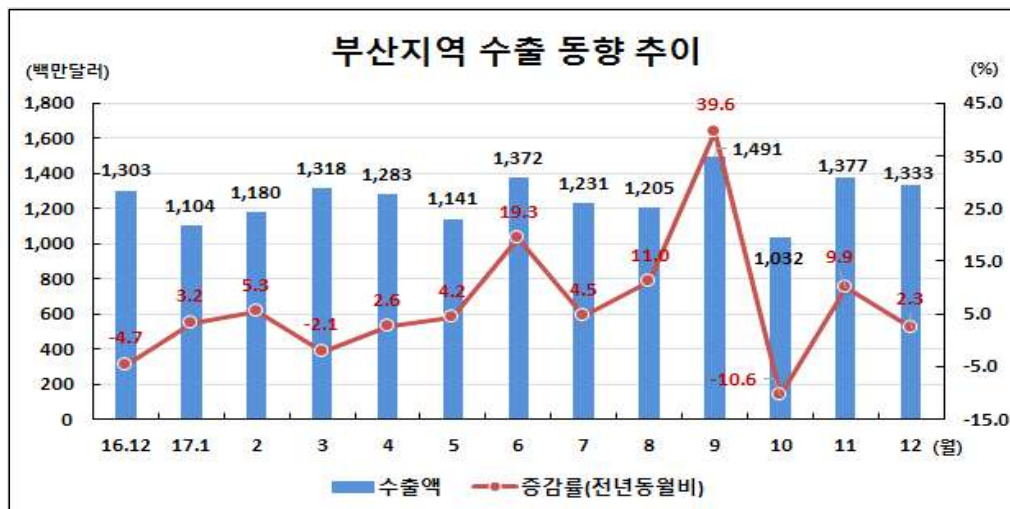
1. 12월중 부산지역 수출입

2017년 12월중 수출: 13억 3,300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수입: 12억 9,900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

무역수지: 3,400만 달러 흑자

- 12월중 부산의 수출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비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기계와 철강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Delta 30.0\%$), 자동차부품($\Delta 4.5\%$), 완성차($\Delta 2.3\%$) 등에서 줄었으나 기타기계류(237.2%), 철강판(11.4%), 철강관 및 철강선(8.0%) 등에서 증가
 - 가공단계별로는 1차산품($\Delta 44.0\%$)과 소비재($\Delta 1.9\%$)는 감소한 반면 각종 설비, 기기가 포함된 자본재(16.2%)와 중간재(5.0%)에서 증가
- 국가별로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Delta 13.2\%$)과 미국($\Delta 11.1\%$), 일본($\Delta 4.0\%$)에서 감소했으나 인도네시아(92.1%), 멕시코(53.1%), 베트남(23.0%) 등 신흥국에서 증가
 - 대미(對美) 수출은 항공기부품(13.7%), 철강판(2.2%)에서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완성차($\Delta 18.0\%$)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감소
 - 대중(對中) 수출은 기계요소(13.8%) 등 각종 기계류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부품($\Delta 37.9\%$), 철강관 및 철강선($\Delta 23.8\%$)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3.2%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륜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수출	1,303	14,074	1,377	1,333	15,066	△3.2	2.3	7.0
	수입	1,113	13,560	1,307	1,299	14,462	△0.6	16.7	6.7
전국	수출	45,069	495,426	49,681	49,065	573,717	△1.2	8.9	15.8
	수입	38,304	406,193	42,008	43,526	478,414	3.6	13.6	17.8

※출처: 무역협회

2. 2017년 부산지역 수출입

2017년 전체 수출: 150억 6,600만 달러 (전년대비 7.0% 증가)

수입: 144억 6,200만 달러 (전년대비 6.7% 증가)

무역수지: 6억 400만 달러 흑자 기록 (3년 연속 흑자)

- 2017년 부산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7.0% 증가하면서 반등하였으나, 주력 품목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의 감소로 전국의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전국 수출 5,737억 1,700만 달러 (전년대비 15.8% 증가)
- 분기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늘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3분기에는 완성차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2017년 부산지역 분기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수 출 (전년동기비)		3,537	3,496	3,331	3,710	14,074	3,602	3,797	3,926	3,742	15,066
		(△8.9)	(△14.5)	(△11.3)	(△3.7)	(△9.7)	(1.8)	(8.6)	(17.9)	(0.9)	(7.0)
수 입 (전년동기비)		3,338	3,478	3,325	3,419	13,560	3,498	3,687	3,600	3,677	14,462
		(△7.6)	(△8.5)	(△2.5)	(△3.8)	(△5.7)	(4.8)	(6.0)	(8.3)	(7.6)	(6.7)
무역수지		199	18	6	291	514	104	110	326	65	604

※출처: 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주요 품목인 철강관 및 철강선(31.6%), 완성차(31.0%), 철강판(26.0%)을 비롯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2.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부품(△51.0%), 기타기계류(△10.2%) 등에서 감소
- 국가별로는 사드보복조치가 발생한 중국(△17.7%)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미국(△5.8%) 등 주요교역국에서 감소했으나 유럽(31.0%) 등 선진국과 UAE(41.6%), 베트남(35.8%), 인도(21.2%) 등 신흥국에서 증가

3. 12월중 부산항 물동량

2017년 12월중 화물처리 실적: 3,412만 6,804톤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 174만 3,884TEU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12월중 부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철강제품 등 중량화물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13.9% 증가
 - 12월중 부산지역 화물처리 실적 전국 비중: 25.3% (전년동월대비 2.7%p 증가)
-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 역시 교역량 증가로 수출입 화물이 각각 9.5%, 5.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12월중 부산지역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 전국 비중: 73.8%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 12월중 환적화물은 87만 3,910TEU로 전년동월대비 8.9% 증가
 - 전체 컨테이너 화물처리량 대비 환적화물 비중 50.1%

<2017년 12월중 부산항 물동량 처리 실적>

(단위: 천톤, 천TEU,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화물처리	29,971	362,369	32,505	34,127	400,513	5.0	13.9	10.5
	컨테이너	1,626	19,456	1,715	1,744	20,473	1.7	7.2	5.2
전국	화물처리	132,766	1,509,479	132,332	134,771	1,570,906	1.8	1.5	4.1
	컨테이너	2,223	26,005	2,326	2,363	27,421	1.6	6.3	5.4

※출처: 해양수산부

4. 2017년 부산항 물동량

2017년 전체 화물처리 실적: 4억 51만 3,072톤 (전년대비 10.5% 증가)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 2,047만 2,786TEU (전년대비 5.2% 증가)

- 2017년 부산항의 물동량은 해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2,000만 TEU를 돌파하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 달성
 - 수출 컨테이너 처리 실적: 1,021만 2,096TEU (전년대비 5.0% 증가)
 - 수입 컨테이너 처리 실적: 1,017만 8,951TEU (전년대비 4.6% 증가)
- 2017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환적화물 처리 실적은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4% 증가한 1,026만 6,141TEU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 비중은 전체 처리량대비 50.1%를 차지

1. 12월중 부산지역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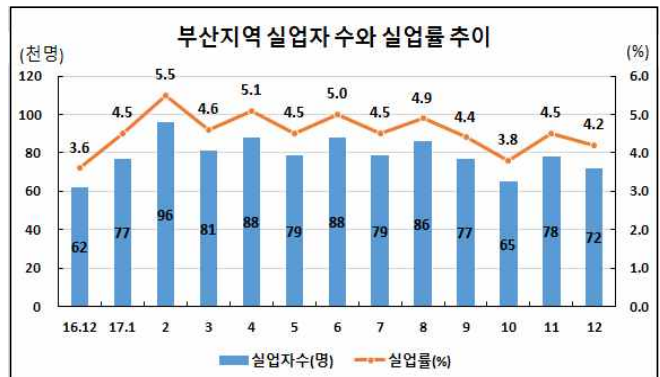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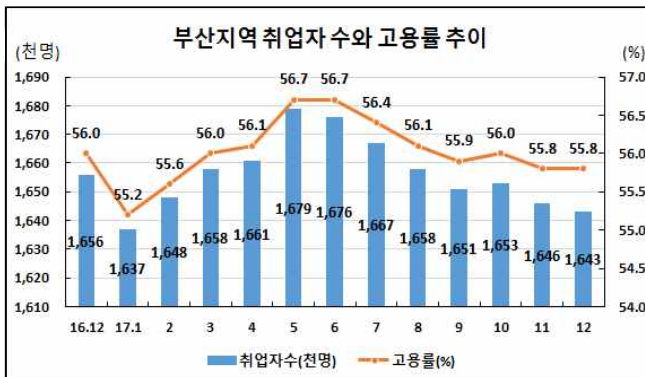
2017년 12월중 취업자수: 164만 3천명 (전년동월대비 0.8% 감소)

고용률: 55.8%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실업자수: 7만 2천명 (전년동월대비 17.0% 증가)

실업률: 4.2%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12월중 부산의 취업자 수는 주력업종의 부진과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천명(△0.8%) 감소한 164만 3천명으로 나타남
 - 2017년 8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55.8%로 전국의 고용률 60.2% 대비 4.4%p 낮음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4.2%로 전국의 실업률 3.3% 대비 0.9%p 높음



-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건설업은(12.6%)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7.4%), 제조업(△2.8%), 사업·개인·공공서비스(△1.1%) 등에서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업종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농림어업	11	11	12	11	13	△12.3	△2.7	16.1
제조업	282	283	273	274	279	0.4	△2.8	△1.2
건설업	135	123	145	152	144	5.0	12.6	17.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11	422	410	411	416	0.2	0.0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05	603	607	598	601	△1.4	△1.1	△0.3
전기·운수·통신·금융	213	218	199	197	202	△1.0	△7.4	△7.5

※출처: 통계청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15세이상인구	2,960	2,962	2,949	2,947	2,956	△0.1	△0.4	△0.2
경제활동인구	1,718	1,728	1,724	1,716	1,737	△0.5	△0.1	0.5
참가율	58.0	58.3	58.5	58.2	58.8	△0.3	0.2	0.5
취업자	1,656	1,660	1,646	1,643	1,657	△0.2	△0.8	△0.2
고용률	56.0	56.0	55.8	55.8	56.0	0.0	△0.2	0.0
전국	60.1	60.4	61.2	60.2	60.7	△1.0	0.1	0.3
실업자	62	68	78	72	80	△7.2	17.0	18.4
실업률	3.6	3.9	4.5	4.2	4.6	△0.3	0.6	0.7
전국	3.2	3.7	3.2	3.3	3.7	0.1	0.1	0.0
비경제활동인구	1,242	1,235	1,225	1,232	1,220	0.5	△0.8	△1.2

※출처: 통계청

2. 2017년 부산지역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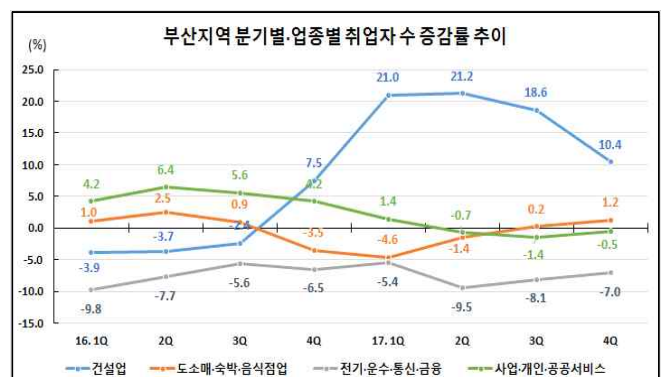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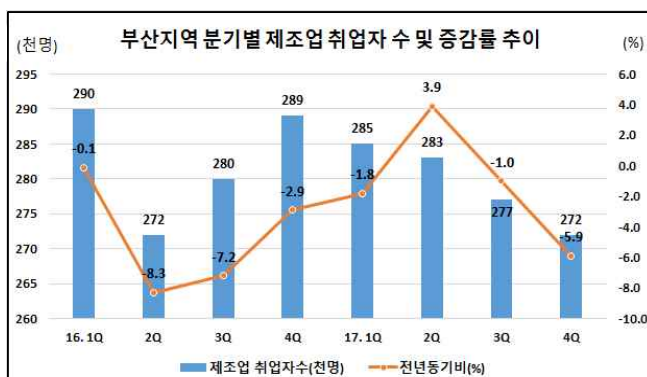
2017년 취업자수: 165만 7천명 (전년대비 0.2% 감소)

고용률: 56.0% (전년대비 보합)

실업자수: 8만명 (전년대비 18.4% 증가)

실업률: 4.6% (전년대비 0.7%p 상승)

- 연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부산의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천명(△0.2%) 감소한 165만 7천명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56.0%로 전국의 고용률 60.7% 대비 4.7%p 낮음
- 실업률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4.6%로 전국의 실업률 3.7% 대비 0.9%p 높음
- 업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서부산권 개발과 각종 재개발 사업에 힘입어 건설업은 전년의 12만 3천명 대비 2만 1천명(17.6%) 증가한 14만 4천명으로 나타남
 - 해운업 구조조정과 주력 제조업종 부진세의 영향으로 전기·운수·통신·금융(△7.5%), 제조업(△1.2%)에서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0.3%)도 각각 감소



IV

물가와 소비

1. 12월중 부산지역 물가 동향

2017년 12월중 소비자물가지수: 103.18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생활물가지수: 102.99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신선식품지수: 105.55 (전년동월대비 6.0% 하락) (2015 = 100)

○ 12월중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 품목과 서비스 품목에서 각각 전년동월 대비 각각 0.8%, 1.9%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1.4%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농산물(Δ 4.0%), 전기·수도·가스(Δ 0.8%)에서 하락했으나, 석유류(7.2%), 내구재(0.9%), 가공식품(0.4%) 등 공업 제품에서 올라 전체적으로 0.8% 상승
- 서비스부문은 전년동월대비 개인서비스(2.3%), 공공서비스(1.4%), 집세(0.9%) 등 전체 항목에서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1.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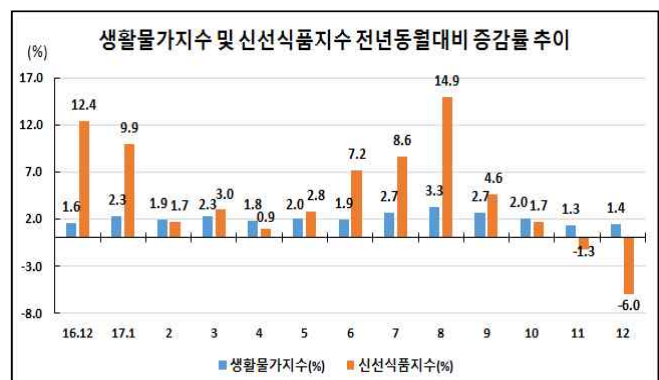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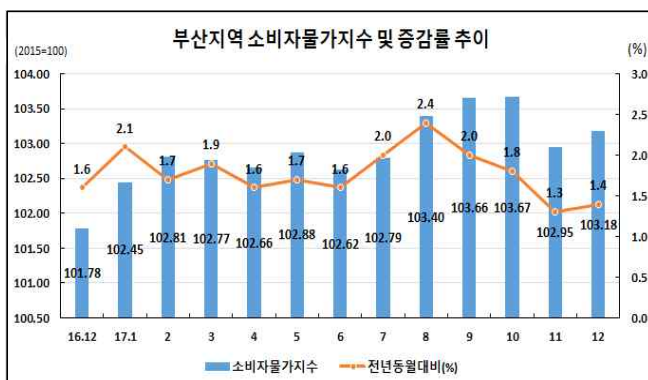
○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Δ 0.4%)와 오락·문화(Δ 0.6%)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교통(3.8%), 기타 상품·서비스(3.4%), 음식·숙박(2.2%) 등에서 증가

○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2.99(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전년동월대비 무(Δ 49.9%), 배추(Δ 40.2%), 도시가스(Δ 4.0%) 등에서 하락했으나, 달걀(24.0%), 보험서비스료(19.5%), 경유(6.5%), 휘발유(6.0%) 등에서 상승

○ 12월 신선식품지수는 105.55(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6.0% 하락

- 전년동월대비 굴(32.1%), 감자(29.2%), 오징어(27.1%), 양파(14.9%) 등에서 상승했으나, 무(Δ 49.9%), 배추(Δ 40.2%), 파(Δ 32.2%), 토마토(Δ 29.6%) 등에서 하락



*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수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물가 동향>

(2015=100, 단위: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륜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소비자물가지수	101.78	101.18	102.95	103.18	102.99	0.2	1.4	1.8
	생활물가지수	101.53	100.89	103.04	102.99	103.04	0.0	1.4	2.1
	신선식품지수	112.29	106.33	105.47	105.55	110.38	0.1	△6.0	3.8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1.56	100.97	102.72	103.04	102.93	0.3	1.5	1.9
	생활물가지수	101.32	100.67	102.78	102.95	103.14	0.2	1.6	2.5
	신선식품지수	111.33	106.49	104.88	107.04	113.14	2.1	△3.9	6.2

※출처: 통계청

2. 2017년 부산지역 물가동향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102.99 (전년대비 1.8% 상승)

생활물가지수: 103.04 (전년대비 2.1% 상승)

신선식품지수: 110.38 (전년대비 3.8% 상승)

(2015 = 100)

- 2017년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품목과 서비스 품목에서 각각 전년대비 각각 1.7%, 1.9%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8%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대비 전기·수도·가스(△1.3%)에서 하락했으나, 이를 제외한 공업제품(1.3%), 농축수산물(4.1%) 등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1.7% 상승
 - ※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7.6%)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서비스부문은 전년대비 개인서비스(2.4%), 공공서비스(1.1%), 집세(1.1%) 등에서 올라 전체적으로 1.9% 상승
-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교통(3.8%), 기타 상품·서비스(2.9%), 음식 및 숙박(2.0%) 등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1.8%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3.04(2015=100)로 전년대비 2.1% 상승
 - 전년대비 달걀(34.2%), 보험서비스료(19.5%), 휘발유(6.5%), 공동주택관리비(5.3%), 경유(8.7%), 전세(2.2%) 등에서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0.38(2015=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전년대비 배(△20.9%), 배추(△20.0%), 부추(△15.5%) 등에서 하락했으나, 굴(61.2%), 오징어(35.0%), 양배추(34.5%), 감(32.1%) 등에서 상승

3. 12월중 부산지역 소비동향

2017년 12월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08.2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백화점: 113.9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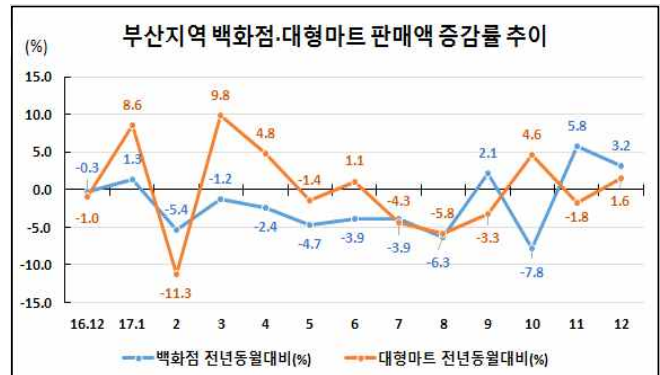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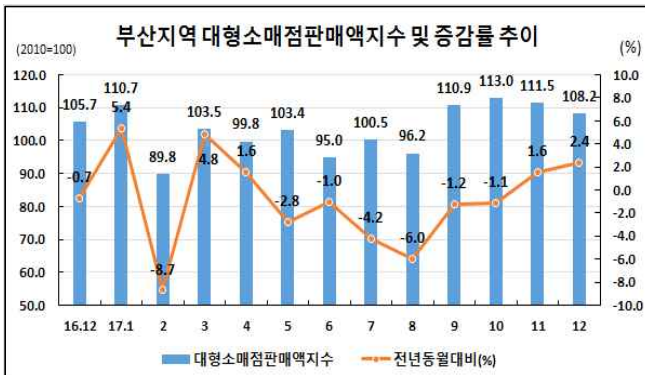
- 대형마트: 103.3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2010 = 100)

○ 12월중 부산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3.2%, 1.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4% 증가

- 12월중 소비는 연말 행사와 기념일 등 각종 이벤트에 따른 선물수요 증가, 한파로 인한 겨울철 의류 소비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4.2%)을 제외한 오락·취미·경기용품(23.9%), 가전제품(15.4%), 화장품(2.5%), 음식료품(2.4%), 의복(2.3%), 신발·가방(1.8%) 등 모든 상품군에서 증가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소비 동향>

(2010=100, 불변지수, 단위: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05.7	104.3	111.5	108.2	103.5	△3.0	2.4	△0.8
	백화점	110.4	98.8	114.2	113.9	97.0	△0.3	3.2	△1.8
	대형마트	101.7	109.0	109.2	103.3	109.1	△5.4	1.6	0.1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22.2	113.5	126.5	128.5	116.5	1.6	5.2	2.6
	백화점	117.4	102.9	118.4	118.3	100.2	△0.1	0.8	△2.6
	대형마트	125.3	120.4	131.8	135.1	127.1	2.5	7.8	5.6

※출처: 통계청

4. 2017년 부산지역 소비동향

2017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03.5 (전년대비 0.8% 감소)

- 백화점: 97.0 (전년대비 1.8% 감소)

- 대형마트: 109.1 (전년대비 0.1% 증가)

(2010 = 100)

- 2017년 부산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대비 대형마트는 0.1% 소폭 증가했으나 백화점에서 1.8%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8% 감소
 - 대형마트는 각종 판촉활동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보합수준이 유지되었으나, 백화점에서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특수 상실, 해외직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분기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사드보복조치,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사드 해빙무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4분기 소폭 반등
- 대형마트는 3분기를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점진적인 회복세 유지

<2017년 부산지역 분기별 소비 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00.7 (0.1)	100.2 (2.7)	106.5 (6.8)	109.9 (1.0)	104.3 (2.6)	101.3 (0.6)	99.4 (△0.8)	102.5 (△3.8)	110.9 (0.9)	103.5 (△0.8)
백화점 (전년동기비)	96.3 (△4.0)	95.6 (△0.3)	91.8 (1.2)	111.4 (△2.7)	98.8 (△1.6)	94.7 (△1.7)	92.1 (△3.7)	89.4 (△2.6)	111.7 (0.3)	97.0 (△1.8)
대형마트 (전년동기비)	104.5 (3.5)	104.1 (5.2)	118.9 (10.8)	108.6 (4.4)	109.0 (6.0)	107.1 (2.5)	105.6 (1.4)	113.7 (△4.4)	110.2 (1.5)	109.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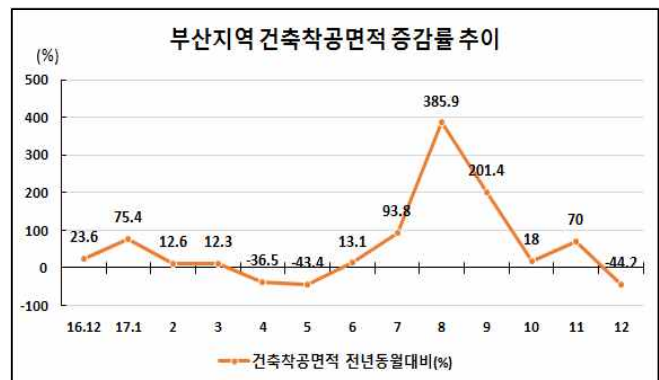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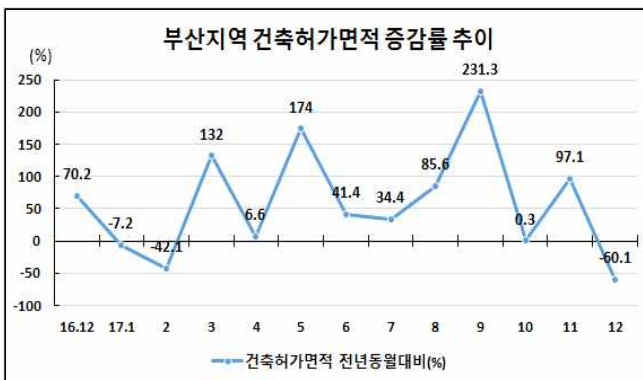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1. 12월중 부산지역 건설동향

2017년 12월중 건축허가면적: 384,521㎡ (전년동월대비 60.1% 감소)

건축착공면적: 363,079㎡ (전년동월대비 44.2% 감소)

- 12월중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공업용(△83.1%), 주거용(△67.6%), 상업용(△42.4%), 문교 및 사회용(△18.3%) 등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60.1% 감소
- 12월중 부산지역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상업용(17.3%) 등에서 증가했으나, 주거용(△71.4%), 문교 및 사회용(△53.0%), 공업용(△38.5%) 등에서 줄어 전체적으로 44.2%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건설동향>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건축허가면적	964,253	7,678,046	607,522	384,521	10,812,864	△36.7	△60.1	40.8
주 거	570,204	3,805,779	271,048	184,662	5,936,650	△31.9	△67.6	56.0
상 업	236,557	2,381,549	228,499	136,373	2,680,037	△40.3	△42.4	12.5
공 업	43,506	373,589	14,181	7,333	260,265	△48.3	△83.1	△30.3
문교사회	38,115	425,403	35,792	31,133	362,820	△13.0	△18.3	△14.7
기 타	75,871	691,726	58,002	25,020	1,573,092	△56.9	△67.0	127.4
건축착공면적	650,443	4,840,287	697,609	363,079	6,672,734	△48.0	△44.2	37.9
주 거	441,647	2,191,556	406,818	126,118	3,101,835	△69.0	△71.4	41.5
상 업	108,627	1,732,426	260,432	127,366	2,443,109	△51.1	17.3	41.0
공 업	34,934	333,441	14,014	21,500	280,949	53.4	△38.5	△15.7
문교사회	29,949	299,285	10,969	14,075	191,359	28.3	△53.0	△36.1
기 타	35,286	283,579	5,649	74,020	655,482	1210.3	109.8	131.1

※출처: 부산광역시

2017년 12월중 건설수주액: 7,643억원 (전년동월대비 45.4% 감소)

- 12월중 부산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건축부문(사무실 및 점포)과 토목부문(도로 및 교량 등)에서 각각 47.2%, 30.3%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5.4% 감소
-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부문(부동산 등)에서 각각 16.0%, 49.2%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건설수주액 동향>

(2015=100,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건설수주액	13,999	83,774	13,901	7,643	82,752	△45.0	△45.4	△1.2

※출처: 통계청

2. 2017년 부산지역 건설동향

2017년 전체 건축허가면적: 10,812,864㎡ (전년대비 40.8% 증가)
건축착공면적: 6,672,734㎡ (전년대비 37.9% 증가)

- 2017년 부산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대비 공업용(△30.3%), 문교 및 사회용(△14.7%)에
서 줄었으나 주거용(56.0%), 상업용(12.5%) 등에서 늘어 전체적으로 40.8% 증가
- 건축착공면적 역시 전년대비 문교 및 사회용(△36.1%), 공업용(△15.7%)은 줄었으나,
주거용(41.5%)과 상업용(41.0%)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37.9% 증가
 -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공장 등 제조시설의 허가과 실제 착공 실적인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전체 건설수주액: 8조 2,752억원 (전년대비 1.2% 감소)

- 2017년 부산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각각 0.9%, 2.9%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2% 소폭 감소
-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민간부문은 5.2% 증가했으나 공공부문에서 9.2% 감소
 - 부산지역 관급공사 수주물량 감소, 대형공사의 전국 입찰로 인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으로 지역의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1.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어음부도율

2017년 12월 어음부도율: 0.14% (전년동월대비 0.58%p 감소)

- 12월중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은 0.14%로 동월의 전국평균부도율대비 0.05%p 높음
 - 부도업체 수는 1개체(개인 1개체) 전년동월대비 4개체 감소
 - 부도금액은 6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3.0% 감소

2. 2017년 부산지역 어음부도율

2017년 어음부도율: 0.12% (전년대비 0.11%p 감소)

- 2017년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은 0.12%로 같은해 전국평균부도율대비 0.03%p 낮음
 - 부도업체 수는 41개체(법인 29개체, 개인 12개체) 전년대비 10개체 감소
 - 부도금액은 804억원으로 전년대비 41.4%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어음부도율 동향>

(단위: 억원, 개체, %, %p)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부산	부도율	0.72	0.23	0.10	0.14	0.12	0.04	△0.58	△0.11
	부도금액	395	1,371	54	67	804	24.1	△83.0	△41.4
	부도업체수	5	51	3	1	41	△66.7	△80.0	△19.6
전국 평균부도율		0.11	0.11	0.10	0.09	0.15	△0.01	△0.02	0.04
지방 평균부도율		0.27	0.26	0.30	0.19	0.27	△0.11	△0.08	0.01
광역시 평균부도율		0.39	0.25	0.20	0.17	0.18	△0.03	△0.12	△0.07

※출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1.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2017년 12월중 신설법인: 393개체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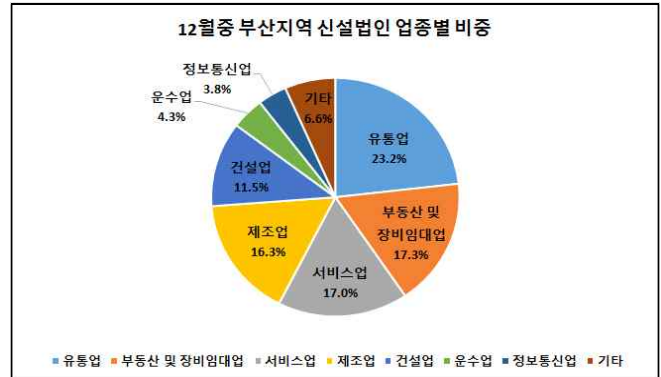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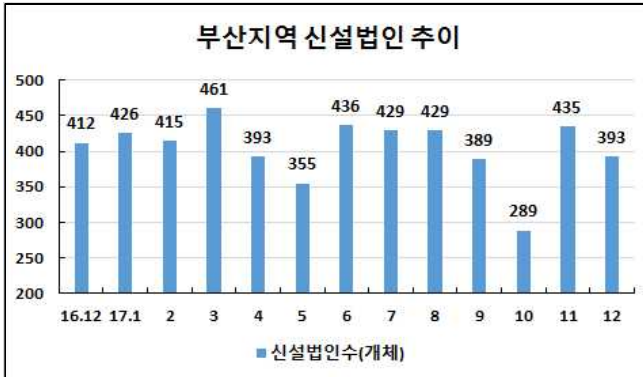
-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지역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따른 부채 부담 증가, 환율 하락, 전방산업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창업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393개체
-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이 135개체(부동산 및 장비
임대 68개체, 기타서비스업 67개체)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34.4%)
 - 이어 유통업 91개체(23.2%), 제조업 64개체(16.3%), 건설업 45개체(11.5%), 운수업 17개체
(4.3%), 정보통신업 15개체(3.8%), 기타 26개체(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7%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 4.7% 증가(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23.6%, 기타서비스업 △9.5%)
 - 반면 건설업(△25.0%), 정보통신업(△25.0%), 유통업(△11.7%) 등에서 감소

<2017년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단위: 개체,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률		
		12월	연간	11월	12월 ^P	연간 ^P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년비
합 계		412	4,817	435	393	4,850	△9.7	△4.6	0.7
업 종 별	수산업	1	7	2	0	9	△100.0	△100.0	28.6
	제조업	60	725	59	64	690	8.5	6.7	△4.8
	건설업	60	751	55	45	673	△18.2	△25.0	△10.4
	유통업	103	1,211	101	91	1,164	△9.9	△11.7	△3.9
	운수업	17	199	22	17	180	△22.7	0.0	△9.5
	정보통신업	20	206	25	15	246	△40.0	△25.0	19.4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55	657	59	68	718	15.3	23.6	9.3
	서비스업	74	842	76	67	870	△11.8	△9.5	3.3
	소 계	129	1,499	135	135	1,588	0.0	4.7	5.9
기타		22	219	36	26	300	△27.8	18.2	37.0
자 본 그 리 고 모 별	5천 이하	294	3,294	293	280	3,377	△4.4	△4.8	2.5
	5천 초과~1억 미만	7	78	7	4	71	△42.9	△42.9	△9.0
	1억 이상~2억 미만	42	685	63	47	654	△25.4	11.9	△4.5
	2억 이상~3억 미만	18	255	26	20	237	△23.1	11.1	△7.1
	3억 이상	51	505	46	42	511	△8.7	△17.6	1.2

※출처: 부산상공회의소



2. 2017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2017년 전체 신설법인: 4,850개체 (전년대비 0.7% 증가)

- 2017년 신설법인은 주력업종의 부진으로 지역 경기의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각종 신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서부산권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한 임대업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7% 소폭 증가
-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이 1,588개체(부동산 및 장비임대 718개체, 기타서비스업 870개체)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32.7%)
 - 이어 유통업 1,164개체(24.0%), 제조업 690개체(14.2%), 건설업 673개체 (13.9%), 정보통신업 246개체(5.1%), 운수업 180개체(3.7%), 수산업 9개체(0.2%), 기타 300개체(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각종 신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라 정보통신업이 19.4%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과 기타산업에서 각각 5.9%, 37.0% 증가
 - 반면, 신규 건설수주 감소,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건설업이(△10.4%)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이어, 운수업(△9.5%), 제조업(△4.8%), 유통업(△3.9%) 등에서 감소